

---

#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보험산업<sup>1)</sup>

##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개요

- (발생 배경)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의 통항이 사실상 마비됨
- (세계적 영향)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천연가스 공급량의 20% 이상, 석유 수출량의 약 1/5이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로,
  - 운항 중단 및 우회 항로 채택이 잇따르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물류·에너지 시장에 초비상 사태가 발생함
- (피해 현황) 3/16 기준 페르시아만 내 약 1,000척의 선박이 고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의 일일 용선료가 일주일 만에 최고 4배 폭등하여 80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에너지 운송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 해상보험 시장에 미친 영향

### ① 전쟁위험 담보의 일괄 철회 및 무효화

-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 개시 직후, 북유럽 및 영국계 주요

---

1) Insurance Journal(26.03.16.) "US \$20B Reinsurance Plan Unlikely to Restart Gulf Shipping Without Liability Cover", Seatrade Maritime News(26.03.05.) "Marine insurers claim war cover available for Strait of Hormuz", The Business Times(26.03.15.) "War risk insurance returns to Strait of Hormuz – at a price", Michigan News(26.03.06.) "The new masters of war: Insurance companies", 보험매일(26.03.03.) "호르무즈 해협 전쟁위험 보험 '전면 철회'" 등의 기사를 참고함

---

선주상호보험조합(P&I 클럽)이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일대를 ‘전쟁 고위험 해역’으로 재분류하고 전쟁위험 담보를 일괄 중단함

- 전쟁위험 담보는 미사일·드론 공격, 기뢰, 나포,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핵심 안전망임
- 이 담보가 빠질 경우 선주와 화주는 선박 전손, 유류 유출, 화물 손실 등에 대한 천문학적 배상 책임을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장 취소는 사실상 글로벌 해상 물류를 차단하는 효과를 초래함

## ② 보험료 폭등

- 국제해상보험연합(IUMI)과 국제보험인수협회(IUA)는 제한적으로 보험인수를 재개하였으나, 일괄 계약 대신 개별 항해마다 위험을 심사하여 7일 단위로 갱신하는 단기 계약 형태로 전환함
- 평시 고위험 해역의 보험요율은 선박 가치의 0.01~0.05% 수준이나,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요율은 최대 3~5%까지 폭등했으며 7일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임
- 1억 달러 가치의 VLCC 기준, 페르시아만 1회 운항을 위한 전쟁위험 보험료가 기존 25만 달러에서 200만~300만 달러 규모로 약 10배 급등하여 에너지 운송 물가 상승을 견인함

## ③ 보험업계 손실 초래

- 보험사의 담보 철회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 규정상 이미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일방적 보장 취소가 불가능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 또한, 약 1,000척의 선박이 현재 페르시아만 일대에 고립되어 있음(로이즈 시장 추산 총 가치 250억 달러 이상)
  - 선박이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12개월 이상 억류 시 일반적인 해상보험 조항에 따라 선주에게 전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글로벌 보험업계에 막대한 잠재적 손실이 존재함
  - 특히, 전 세계 다수 보험사로 분산되는 자연재해 리스크와 달리 해상 보험 시장은 소수의 전문 보험사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손실 발생 시 특정 해상 전문 보험사들의 연쇄 타격이 우려됨

## □ 미국 정부 대응 방안

### ① 해상 재보험 프로그램

- 미국 정부는 3/6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해상 재보험(선체 · 적하 보장) 지원 계획\*을 발표
  - \* DFC는 사고당 200억 달러의 손실을 보장할 계획
  - 민간 보험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전쟁 리스크를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백스탑(Backstop) 구조임
  - 3/11 민간 보험사 Chubb사를 리드 파트너로 선정해, Chubb가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DFC와 미국계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제공하기로 함
- 하지만 대규모 해양 오염 등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배상책임 보장이 빠져 있어 선주들의 운항 재개 유인이 부족하고,

- 
- DFC의 총 가용 자금(1,540억 달러)이 유조선 보험 보장에 필요한 약 3,52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

## ② 해군 유조선 호위 작전

- 트럼프 대통령은 3/3부터 이란의 직접 타격으로 인한 해상 물류 마비 해소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미 해군이 호위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함
- 하지만 해협 폭이 21해리(약 39km)로 매우 좁아 해안포 및 단거리 드론에 노출될 경우 방어가 어려우며,
  - 한국, 일본, 유럽 국가 등 미국 동맹국이 참여를 망설이는 등 작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위함 자체를 타격 목표로 삼을 경우, 현재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더 큰 글로벌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